



## 2014년 대한출판문화협회 정기총회 고영수 청림출판(주) 대표 48대 회장 선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는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6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고영수 청림출판(주) 대표이사가 제4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윤형두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부로 3년의 회장임기가 끝나 신임 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회장 선거를 통해 출협의 위상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로 선출된 신임 회장은 출협이 가장 존경받는 문화단체가 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출판인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윤형두 회장 개회사, 총회 의사록 서명인 및 서기 감찰 선임, 제66차 정기총회 의사록 채택, 2013년도 사업보고, 감사보고, 수지결산보고 등 보고사항,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임원(회장, 감사, 전형위원) 선출, 기타사항 등 의안상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상정된 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선거에는 김종수 도서출판 한울 대표와 고영수 청림출판(주) 대표가 출마했으며, 투표 결과 고영수 대표가 148표

(의무이행사 379사 중 237사가 투표에 참석)를 얻어 89표에 그친 김종수 대표를 누르고 48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또한 감사에는 이준직 한국기독교문화원 대표, 전형위원에는 정종진 도서출판 성림 대표, 김진환 (주)학지사 대표, 임종대 미래문화사 대표, 이방원 세창출판사 대표, 이대철 (주)한국슈바이처 대표, 최선호 (주)도서출판 세계사 대표, 이대현 도서출판 역락 대표, 강해작 도서출판 기문당 대표가 선임됐다. 당선 소견에 부처 고영수 회장은 “서점이 살아야 출판도 산다. 임기 중 지역서점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완전한 도서정가제 정착을 관철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고영수 회장은 주 공약으로 ‘경청과 대화로 화합과 단결 도모’, ‘출판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도서정가제, 디지털 교과서, 복스캔 추진 저지’, ‘공정한 정부 포상제, 출판유통 혁신’ 등의 내용을 담

은 ▲출판계 대화합 연출 ▲왜곡된 출판 정책 개선 ▲내부혁신 추진 등을 내세웠다. 임기는 2017년 2월까지 3년이다.

고영수 신임 회장은 서강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67년 선친이 창립한 법률서 전문 출판사인 ‘청림각’의 뒤를 이어 현재 경제경영, 법률, 실용, 문학 등을 총망라한 청림출판(주)(1987년 상호변경)를 이끌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44대),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 한국전자출판협회 부회장, 한국잡지협회 이사, 한국출판연구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014년도 사업으로 ▲협회 조직 운영 강화 ▲회원의 권익옹호 친목도모 ▲출판산업의 경영합리화 ▲출판산업 관련 법제 개선 ▲독서환경 개선 및 독서진흥 사업 추진 ▲한국 출판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